

고려용접봉 호남총판
민성
주식회사
공장산업자재(MRO) 불류전문회사 T) 062-953-8318

광남일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나주신협
나주신협 061)332-5131
나주신협 반가람지점 061)332-6182

조건 제 8043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음력 1월 25일)



12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시범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투·타 활약을 앞세운 KIA는 9-4 승리로 뜻밖의 출발을 알렸다. 오는 15일까지 홈 4연전을 치르는 KIA는 곧바로 원정길에 올라 24일까지 남은 일정을 소화한다. 시범경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28일 KBO 정규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돌아온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2026 KBO 시범경기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야구 시즌 맞이에 나선다.

▶관련기사 15면
이날 경기에서 9-4 승리로 손조로운 출발을 알린 KIA는 13일까지 SSG와 홈 2연전을 치른다. 14~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kt위즈와 2연전을 치른다. 이후 모든 경기를 원정으로 치른다. 16~17일 NC다이노스(창원)를 시작으로 19~20일 한화이글스전(대전), 21~22일 두산베어스전(잠실), 23~24일 삼성라이온즈전(대구)까지 일정을 소화한다.

시범경기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는 28일 인천으로 올라가 SSG랜더스와 2026 KBO 정규리그 개막전에 돌입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gwangnam.co.kr

시·도 광역단체장에 '다선' 국회의원 '본경선 몸풀기'

시도지사·여론선두·동부권 대표, 검증 '첫 시험대'
김영록·강기정·민형배·주철현 A조 편성 관심 집중
B조 정준호·신정훈·이병훈...17일~18일 조별 대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TV토론회 대진표

A조 : 3월 17일 오후 5시10분				B조 : 3월 18일 오후 5시10분		
김영록	강기정	민형배	주철현	정준호	신정훈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토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예비후보 등록 직무정지), 여론조사 1위 후보, 전남 동부권 대표 주자가 한 조에서 맞붙는 '빅매치' 구도가 형성됐다. 유력 주자들이 한 조에 묶이면서 이번 경선 판세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발전 전략과 광주-전남 대표성 문제까지 맞물린 만큼 후보 간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7명의 기호와 조별 TV토론회 대진표를 추첨을 통해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1번 김영록, 2번 강기정, 3번 정준호, 4번 주철현, 5번 신정훈, 6번 민형배, 7번 이병훈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경선 후보 8명을 4명씩 두 조로 나눠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

이었으나, 이개호 의원이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A조 4명, B조 3명 체제로 조편성이 이뤄졌다.

추첨 결과 A조에는 김영록·강기정·민형배·주철현 후보가 배치됐고, B조는 정준호·신정훈·이병훈 후보로 구성됐다. 권역별 구도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A조는 광주 기반의 강기정·민형배 후보와 전남 기반의 김영록·주철현 후보가 맞붙는 '광주 대 전남 2대2' 구도다. 반면 B조는 광주 출신 후보 2명과 전남 연고 후보 1명이 경쟁하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A조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경쟁력이 거론되는 후보들이 한 조에 묶이면서 사실상 선두권 경쟁이 동시에 펼쳐지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의 발전 전략, 산업·교통·행정 통합 비전 등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론회가 경선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반면 B조는 상대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후보 간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정책 메시지와 인물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토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별 TV토론회는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A조 토론은 17일 오후 5시10분부터 7시5분까지 진행되고, B조 토론은 18일 같은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A조는 사실상 본경선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토론 결과가 경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B조 역시 후보 간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선 후보자 등록 공고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경선 일정에 들어갔다. 후보자 등록은 11일 마감됐으

며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을 포함한 기탁금은 후보 1인당 최대 1억1100만원이다.

예비경선은 관리당원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본경선과 결선에서는 관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여론조사는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 9만개를 활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되며 총 3000명의 유효응답 표본을 확보할 계획이다.

TV토론회에 앞서 오는 14일 중앙당사에서 온라인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이후 본경선 단계에서는 합동연설회 대신 정책대심원 권역별 심층토론회가 진행된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 계속

"여객기 참사 유해 부실 수습 엄중 문책"

이 대통령,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 진행 주문
현장조사·유가족 협의 후 무안공항 재개항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초기 수습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뒤늦게 확인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관련기사 9면
이 대통령은 12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고 초기에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경우와 1년 넘게 유해가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문하며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시했으며, 뒤늦게 유해가 발견된 데 대해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문제와 관련해 "현장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통합시장 후보에 듣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면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